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설 선물세트 판매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사경협)가 창립기념 품앗이 이벤트로 27일 시청 1층 로비에 소비자가 선물세트를 직접보고 주문할 수 있는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선물세트를 생산·판매하는 회원사의 제품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구입하는 '품앗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농산물을 생산한 한국세트, 오일세트, 건강세트 등 14개 종류의 선물세트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회적경제협의회 김중술 사회적기업부대표는 "처음 구성된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이번 행사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김재연 과장은 "시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 도모에 적극 나서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덕규 남원소방서장, 공장시설 현장지도

남원소방서 박덕규 서장은 27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겨울철을 대비해 지역내 노안농공단지 주(주)GMF공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이날 지도방문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안전환경조성과 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상호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경영자의 화재예방 관심 및 의의제고 ▲겨울철 화기취급 등 소방안전수칙 준수 당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박 서장은 "공장시설은 도내 겨울철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화재 발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중앙합업 컨소시엄 장학금 3백만원 기탁

(주)중앙합업 컨소시엄이 26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장학금 300만원을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 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중앙합업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부터 군의 도로와 각종 지하시설물(상·하수도)의 위치 및 속성정보의 정산화 용역을 수행해온 업체로 (주)중앙합업(대표 사재관), (주)폴랜드(대표 김병기), (주)새한합업(대표 김여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로 군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한 중앙합업 상무이사 신윤수씨는 "5년간 임실군과 인연을 맺어 일을 해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아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임실군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장학사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업인의 애정과 관심이 합입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임실군애향장학회는 "지난 20일 (재)임실군애향장학회 통장에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1백만원의 장학금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주천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진안군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기사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져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주천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익명을 요구한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좋은 일에 써달라며 진안군 원행복상품권 8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또 다른 주민도 익명을 요구하며 명절을 맞이해 마음이 추운 사람들에게 써주길 바란다며 5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탁하고 있어 주위에 따뜻한 경증을 울리게 했다. 주천면은 이번에 기탁된 성금들을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곰고미 창고' 착한 나눔 확산

무주군, 남너노소 누구나 간식·응원메시지 나눠... 현재 7곳, 3곳 더 설치 예정

무주군에 창고형 수납장 '곰고미 창고'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곰고미 창고'는 주민들끼리 간식과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으로 남너노소 누구나 기부도 하고 자신이 수혜자가 되어 꺼내 먹을 수도 있는 먹거리 창고다.

안성면 주민 김 모 씨(43)는 "무주커뮤니티를 통해 곰고미 창고가 운영된다는 걸 알았다"라며 "기부라고 해서 거창하게만 생각했는데 창고 안에 '함내세요'라고 적힌 사탕 한 봉지를 보면서 소소한 나눔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다"라며 "지나가다, 일하다가 출출하면 당당하게 먹고,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착한 나눔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착한 나눔 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한 '곰고미 창고'는 현재 설천면 불대마을과 부남면 우체국, 안성면 시장,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 민원실, 무주 종합복지관 등 7곳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후 곰고미 창고가 필요한 3곳을 더 선정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무주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착한 나눔과 소비를 부추기는 곰고미 창고가 코로나19 시대에 접체된



마을의 가치와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마을 활동가들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공동화민 마을을 찾아 추진하고 있는 곰고미 창고 등 착한 나눔 문화 확산 프로젝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8년 1월에 설립돼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 지원과 시·군 역량강화, 도·농 교류 마을 활성화 사업,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주도의 농촌체험과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해 무주군 마을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전북대 기념커피' 론칭

대학 발전지원재단, JJ 인터내셔널 CB산업 등과 협약 체결로 사업 본격화

전북대학교가 대학민의 대표성 있는 기념품을 만들고, 수익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발전기금 방안 마련을 위해 '전북대 기념커피'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사장 이귀재)은 27일 커피 수입 및 가공 업체인 JJ International(대표 설운수)과 유류 전문 기업인 CB산업(대표 임윤숙) 등과 협약을 체결, 기념커피 사업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론칭하는 전북대 기념커피는 케냐 더블에이(Kenya AA) TOP으로, 킬리만자로 동쪽 케냐 해발 1,500~2,1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특유의 다크 초콜릿 맛과 풍부한 바디감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최고의 커피다.

특히 청량감 있는 신맛과 과일의 단맛이 일품인 케냐 생두는 전체적으로 향이 우수하고 맛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JJ International 및 CB산업으로부터 기념커피를 공급받아 수익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이를 위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jnufund)을 통한 기념커피 론칭을 홍보하고, 전화(270-3494) 주문도 받을 계획이다.

이귀재 이사장은 "전북대민의 대표 기념품 사업화를 추진하고, 수익사업으로 발전기금 모금까지 활성화하기 위해 기념커피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 기념의인인 더불어 기념커피라는 기념품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발전기금 확충 등 다양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우성약국, 온정 듬뿍 담은 라면 180박스 기탁

익산 우성약국은 27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180상자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설 명절을 맞아 주위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성약국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을 자체 적립해 기탁품을 마련했고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지역에 지정 기탁해 전달될 예정이다.

강태욱 대표는 "매마다 설 명절이 돌아오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재능이 더 어렵기에 라면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웃과 나누고자 후원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불심양면으로 후원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한 라면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마음의 정을 듬뿍 담아 저소득층에게 잘 전해 드리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편 우성약국은 지난해 4회에 걸쳐 라면 300상자, 안경 200개, 냉장고 1대를 저소득층과 미등록경로당에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군 상전면 자율방범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부

진안군 상전면 자율방범대(대장 현영수)는 지난 26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며 상전면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상전면 자율방범대는 42명으로 구성되어 관내 치안을 위한 순찰, 실종자 수색, 어려운 이웃 살피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은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기탁하여 큰 의미가 있다. 현영수 대장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코로나19로 평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읍, 소외계층 방문 상품권 전달

임실읍이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가구 등을 방문하여 불편함이 없는지 안부를 묻고 설맞이 취약계층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 대상인 서모 씨(85세)는 노인 부부가구로 남편이 장애로 누워 생활하여 남편 간병으로 외출이 힘든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 소통도 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격려와 지원품을 받은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우울감으로 힘들었는데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이상덕 임실읍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27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문구로 의미를 쉽게 전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선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다. 이인영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Advertisement for '인사' (Introduction) featuring a list of names and titles, including '국토정보공사' and '전주대학교'.